셨단다. "대개 보면 형태가 커질 적에 종교 심성은 낮은 거예요. 속이 허할 때 포장하려드는 거죠. 반가상 조그마한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되는 건데 고려 후대로 와서 불상이 커져요."

- 화관, 정병, 구고!

선생에게 관음보살상 조각은 오랜 숙원이었다. "반가상을 하나 만든 적이 있었어요. 흙을 붙여놓고는 부리나케 국립박물관으로 달려갔어요. 너무 닮았으면 어쩌나 해서. 다행히 그렇지는 않더라고." 선생말씀을 들으면서 "난 나이고 싶다."던 법정 스님이 떠올랐다. 길상사에 관음상 만들기 위해 선생 댁을 찾은 법정 스님에게 묻는다.

"머리에 쓰고 있는 관이 뭡니까"

"화관花冠입니다."

"손에 들고 있는 병은 뭐죠?"

"정병淨甁입니다."

"손바닥을 펼쳐 올린 까닭은 무엇인가요?"

"구고救苦입니다."

짧은 선생 물음에 법정 스님 또한 토씨 하나 안 붙이고 외마디 답으로 일러주셨다. '꽃 관, 맑은 물, 세상고통을 구한다.' 는 세 마디 말씀을 듣는 순간, 작품이 다 그려졌다는 선생은 이튿날 흙일을 일사천리, 세 시간 만에 다 끝내고나서 길상사로 전화를 했다. 뜻밖에도 법정 스님이 직접 받으셨다. 다 됐다 하니 그럼 지금 가보겠다고 했다는 말씀을 하면서, 선생은 관음상 조성을 돌아본다. "스님과 내가 뜻이 맞아 길상사 절 마당에 관음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억겁 시간 속에서 우리 두 손이 잠깐 하나로 만나서 한 형상이 태어났습니다." 점안식 날 법정 스님은 관세음보살과 성모마리아는 그 상징성이 같다는 말씀을 했다. 그 자리에서 불모 최종태 선생은 짧은 인사에서 "땅에는 경계가 있지만 하늘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종교가 울타리를 허물면 한마당이 될 것입니다."고 했다. 이 일이 비록 작은 일긴 하지만 결코 작은 일만은 아니라면서 당신 생각과 모든 바람을 다 쏟았으니 모든 이야기는 형태가 말할 것이라고. 우리나라 불상은 우리 소녀를 그려냈다는 선생은 평생 소녀상만 조각하고 그렸다면서 한국 조각가 가운데 당신처럼 불상 영향을 크게 받은 이가 없다고 힘주어 말씀한다.

71년 일본 호류지(法隆寺) 툇마루에서 처량하게 비 맞고 서있는 나무로 깎은 백제관음을 보고 가슴 아려했던 선생은 그 백제관음이 당신이 가장 아끼는 관음상이라고 말씀한다. 언젠가 프랑스 앙드레 말로가 일본을 보고 돌아갈 적에 공항에서 만난 기자가 '만약 일본이 바다로 가라앉는데 문화유산 가운데 하나만 가져갈 수 있다면 무엇을 가져가겠느냐?' 고 물었을 때, 망설이지 않고 '백제 관음이다.' 고 답을 했다는데. 앙드레 말로가 길상사 관음을 본다면 무슨 말을 할까?

- 눈이 열렸다!

쉰 살. 어느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조각이라고 하는 건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그냥. 팍 들어오는 거여. 뭐 생각할 여지가 없었어요." 모른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선생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소녀상과 최선생의 얼굴은 겉에서 대비되지만 속마음은 다르지 않다. 신을 향한 순수한 마음의 최선생, 세상을 보는 맑은 마음의 소녀상은 그 본류에서부터 닮았기에 선생은 선생대로 조각은 조각대로 세상을 정화시킨다. 법정 스님과 선생의 인연의 산물인 길상사의 관음석상은 정화에 더해 법을 향한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았던 스님의 '무소유' 를 보는 이들에게 스스로 물어보게 하는 표지로 세상에 남아있다.

선언했다.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것이다." 모른다는 걸 알고 날듯이 기뻤다는 이 어른, 하늘 뜻을 알았다. "지금도 생각해 보면 내가 뭘 알아. 그림에 대해서 내가 몇 만분지일을 체득한 것뿐이지, 그림세계라고 하는 건 여전히 미지 세계에요. 이따가 내가 어떻게 그릴 지도 모르는 건데 뭐."

시공간을 버리고 우레 같은 침묵으로 돌아간 법정 스님과 인연을 돌아보는 최종태 선생. 오래전 선생이 아직 젊었을 때 불경공부를 하고 난 뒤 성경이 하룻밤 새 다 읽혔는데 그 까닭을 몰라 오래도록 궁금해 하다가, 법정 스님을 만난 자리에서 물었다. 스님은 "경을 읽는 눈이 열렸다."고 했다. 40년 묵은 숙제가 단칼에 풀렸다고 말씀하는 선생 눈이 그윽하다. "법정은 맑아요. 맑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맑음이 옮아요. 가슴속이 눈 쌓이는 밤처럼 시원해요. 좋은 그림 앞에 있으면 좋은 기운이 내 마음에 스며들어오는 것처럼." 선생은 지난 2월 하순 스님을 마지막 뵈었다. 스님은 보자마자 원願은 여전한데 한계가 있다며 당신은 다 내려놓고 떠날 차비를 하시면서도, 마치 '당신을 뵈면 가슴속이 눈 쌓이는 밤처럼 시원하다' 는 선생 말씀이라도 들은 듯이 "퇴원하면 강원도 눈 보러 갈 것"이라며 농을 던지셨다는데….

대 그림자 뜰을 쓸어도 먼지 일지 않고
달이 연못에 들어도 물에는 흔적 없네.



원영상의 인물로 보는 일본불교 10

민간 정토교의 시조 쿠야(空也)

교토를 중심으로 1100여 킬로미터를 40여 일간 영험한 관음을 모신 사찰을 참배하는 서국(西國) 33개소 순례는 일본의 인기 있는 순례코스 중의 하나이다. 이 순례는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에 관음보살이 중생을 구제하실 때, 33응신으로 나타나 이 생의 모든 죄업과 고통을 소멸했다는 것에 유래한다. 이 순례의 17번째 코스는 교토 동쪽 산기슭에 자리 잡은 육바라밀사라는 사찰이다. 고대 및 중세에 조각된 많은 불상과 인물상을 소유하고 있는 이 절은 민간 정토교의 시조로 불리는 쿠야(空也, 903~972) 스님이 세운 절이다.

육바라밀사의 보물관에는 유명한 쿠야의 목조 초상조각상이 있다. 진지하고 헌신적인 얼굴과 함께 평범한 백성에게는 친근하고 소박한 옷을 걸친 그는 목에 징을 걸고, 오른손에는 채를 잡고 있으며, 왼손에는 사슴의 뿔이 달린 지팡이를 움켜쥐고 있다. 짚신을 신은 강인한 다리는 대지를 굳게 딛고 있다. 무



육바라밀사 소장 쿠야의 목초상조각상

조정에서는 여러 사찰의 능력 있는 승려들을 모아 혼령들을 조복받는 가지기도(加持祈禱)를 행하기도 했다. 쿠야의 불법에 바탕한 실천행은 마음으로부터 민중의 두려움을 없애며, 더욱이 사자를 손수 거두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줬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 외에도 쿠야는 11면 관음상, 범천, 제석천, 사천왕 등을 조각하거나, 〈대반야경〉을 필사해 불력을 기원했다. 그의 이런 원력으로 염불포교 도량인 서광사(西光寺)가 세워졌으며, 이 절이 훗날

역병돌자 관음상 태운 수레 끌며 중생구제
신자들에게는 차 공양, 사자에는 염불 공양

엇보다도 특징적인 것은 입에서 나온 가는 철사 위에 6구의 아미타 불상이 나란히 세워져 있다는 것이다. 열려진 입에서 막 튀어 나온듯한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 6자 명호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후 만들어진 쿠야상이나 그림은 모두 이러한 모습을 띈다. 민중들은 그가 염불을 한 번 할 때마다 입에서 6구의 아미타 불상이 나왔다고 믿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본 너무나도 사실적인 표현이 아닐 수 없다. 쿠야를 '아미타 히지리(聖)' 또는 '이치 히지리(市聖)' 라고 하는 이유를 이 모습에서 알 수 있다. 히지리는 국가의 관승에 대해 반승반속의 민간 승려를 지칭하는 말이다. 스스로 히지리라고 칭했는데, 중세 민간불교의 전파에는 이들 히지리의 역할이 컸다. 이들은 염불 히지리, 유행(遊行) 히지리, 권진(勸進) 히지리 등으로 불렸다.

쿠야는 민간 속에서 구제행을 펼친 염불 히지리였다. 당시에는 역병이 나돌아 시신을 거둘 방도조차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다. 쿠야는 죽음의 공포에 떠는 사람들과 사자들이 공존하는 도시의 한가운데를 관음상을 태운 수레를 이끌며, 한편으로는 징을 치고 염불의 외며,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차와 더불어 소금에 절인 매실(우메보시)을 공양했다. 교토 동쪽으로 흐르는 카모 강에는 버려진 시신이 산을 이뤘다.

그는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염불을 멈추지 않고 시신들을 화장했다. 그 시대는 제어할 수 없는 유행병으로 인한 무기력과 죽은 자의 혼령에 대한 공포가 도시를 덮고 있었다. 소위 어령(御靈) 신앙이 유행하여, 육바라밀사가 됐다.

쿠야는 일설에는 당시 다이고 천황의 왕자라고도 하나 확실하지는 않다. 그는 948년 히에산 천태종 좌주(座主) 엔쇼(延昌)로부터 수계를 받고, 코쇼(光勝)라고 하는 불명을 받는다. 학문이 뜻에 맞지 않음을 깨달은 그는 모든 서적을 불태우고 민간포교자로서의 행보를 결심, 스스로 쿠야라 이름 지었다. 그 시대에는 왕족 또는 귀족이 출가해 대사찰을 장악, 불교와 정치권력의 야합으로 일반 백성들에게 불법의 인연은 멀기만 했다.

그는 앞서 교키(行基)의 전통에서 보듯 도로나 다리를 보수하며, 사찰을 세우고, 가난과 병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구제했다. 또, 염불행을 하며 면면촌촌을 유행하다가 길섶의 시신을 보면 거두어 화장하기도 하고, 도시의 저자거리에서는 민간구제에 온 힘을 쏟았다. 쿠야의 상에서 상상할 수 있듯이 징소리를 울리며 암울한 시대의 공간을 가르는 그의 카랑카랑한 목소리는 집집마다 불음(佛音)을 전파하는 자비보살의 손길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그의 포교 방식과 관련, 쿠야에게 가탁해 그를 춤염불(踊念佛)의 개조로 보기도 한다. 우란분절에 쿄토를 중심으로 행해진 이를 6재(六齋) 염불이라고도 한다. 매달 8, 14, 15, 23, 29, 30일을 악귀가 출몰하여 목숨을 앗아가는 날로 보고 이날은 징을 치고 춤을 추며 염불을 외웠다. 지금도 민속예능의 형태로 발전되어 전해지고 있다. 쿠야는 이후 14년간을 더 전국을 돌다가 71세로 열반에 들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100% 순수 국내산 ! 국내산이 아닐경우 1억원 배상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自然 품격높은 최고의 선물!!!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께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 (고혈압, 저혈압),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0년,120년 외 자연 산삼 보유. (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 20년근 이상 장뇌산삼 보유.

30년 전통의 산삼취급 전문업체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주문처 | 서울 (02)713-7798 / 010-5250-7798

심마당 국립농산물 품질관리 검정필 (분석 51160-150)